

'일상의 나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해요

'행복나눔道! 복지충북!' 1호로 '충북도청' 지정, 나눔릴레이 시작!

4월 23일(수),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 이하 협의회)가 충북도민의 일상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행보나눔도(복지충북!) 나눔릴레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참여하는 생활형 기부 모델로써 매 월 1회 나눔행사에 참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서 3천원 미만의 지정된 식품 생필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청을 1호로 지정하고 나눔릴레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도청 직원들은 출근길에 하면서, 휴지 등의 식품 생필품을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동중인 좋은이웃들, 봉사단원과 지역 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나눔행사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매 월 나눔릴레이에 참여할 기업 및 단체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나눔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다양한 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작은 나눔을 시작으로

부하여 나눔을 실천했다. 당일 기부된 물품은 충북 도내 푸드뱅크를 통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이날 행사는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참여하는 생활형 기부 모델로써

매 월 1회 나눔행사에 참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서 3천원 미만의 지정된 식품 생필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청을 1호로

지정하고 나눔릴레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도청 직원들은 출근길에

하면서, 휴지 등의 식품 생필품을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했다.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나눔릴레이 행사에 충북도청이 1호로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이러한 나눔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정부, 민간중심 나눔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의 비전으로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자원봉사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신뢰와 소통으로 복지거버넌스를 꿈꾸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혁신전략



이상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충청북도의 사회복지계는 복지거버넌스를 이루어냈는가? 이를 통해 대한 지역사회에의 반응은 냉담하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 이하 협의회)가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을 통감하면서 신뢰와 배려, 공유,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협의회가 창립된 지 19년만의 변화이다. 협의회 소속 전 직원들은 지역사회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고 신뢰와 소통을 통한 책임있는 변화와 혁신에 돌입하였다.

새로이 수립한 미션은 충북도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이다.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존재이유라고 생각한 것이다. 비전 역시 최적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복지모델의 표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기획안(strategy planning)도 마련하였다.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협의회의 혁신전략을 다루어 본다.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기본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도는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간 협의회의 지역사회활동은 소통과 공유, 협력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변화의 시도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조율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사업들은 원점에서 검토되었다. 또한 직접서비스는 모두 중지되었다. 대신 시군사회복지협의회와의 공동사업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였다.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직원들을 사무실 밖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게 최우선의 목표이다. 밖으로 나가서 사회복지현장의 기관들과 만나고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도입

하고 있다. 연대와 협력의 출발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포럼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들은 시군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기급적 다양한 직무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공공영역과의 협력도 중요한 한 축이므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조례나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한다. 호와 복지를 접목하기 위하여 협력 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는가 하면, 도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으로 협의회가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의 대표기관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적어도 민과 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대변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에의 종론이다. 때문에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복지연합 및 직무단체들과 공동으로 복지의제를 발굴하고 공약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사 체우기선을

위한 정체제안을 실시하는 것도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클릭 한 번으로 고급 사회복지정보가 우르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편집위원들이 충북사회복지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사회복지계의 뜻을 담아내고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이 원하는 생생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북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촌철살인의 템플로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오랜기간 동안 언론기관에서 주필을 역임해 온 본 협의회 김춘길 이사를 편집고문 겸 주필로 위촉하고 충북사회복지신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생한 정보 제공은 두 가지 영역에 제공한다. 그 중 하나는 중앙부처와 복지재단, 각종 지원기관, 사회공헌 기업 등의 공모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 기관들의 균형을 소홀

킬미터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와 ICT융합을 통해 창조적인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충북복지연구소도 신설하여 초대소장으로 서정민 전)건국대 교수를 위촉하였다. 이러한 정보 역시 사회복지기관들이 클릭 한 번으로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상적 나눔문화의 확산 일상을 기부하라

협의회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을 기부하라라는 슬로건으로 행복나눔도! 복지충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민이 일상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것 하나를 나누자는 의미에서 한 달에 한번 행복나눔데이를 지정하고 치약 치솔 세트, 라면 한 봉지, 물 화장지 등 소소한 물건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물품들은 푸드뱅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부도 신

설하였다. 사회공헌부에서는 이 외에도 기업 사회공헌 컨설팅, 정보제공, 나눔축제 등의 사회공헌 하브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거버넌스를 통해 희망을 만들자

누군가 우문한답을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풀이하였다. 참으로 의미있는 해석이다. 협의회는 현장과의 신뢰와 소통으로 복지거버넌스를 이루어내야 한다. 기존의 관주도적 행정으로는 현장의 문제점과 디자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실행절차를 개선하여 영여별 복지현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설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하여 충북복지환경의 전환적인 책임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충북복지거버넌스이다.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충북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전제된다. 협의회의 책임있는 변화와 혁신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행복나눔道! 복지충북! 나눔릴레이는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익캠페인입니다.

- 참여대상: 충북도민, 기업
- 참여방법: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로 나누어 주세요.
- 나눔물품: 3천원 미만의 식품 및 생활용품이 필요해요.
- 나눔문의: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234~0840~2



♥ 한달에 한번 행복나눔데이에 물품을 기부해주세요! ♥



잇단 장학금 전달… 인재육성 큰 보탬

청원 오창농협, 오창고양 청중에 3백 만 원 씩 낭성 송운장학회도 480만원 건네



오창농협이 8일 오창고등학교와 양청중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충북 청원군 오창농협(조합장 강신택)은 8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오창고(교장 장재영)와 양청중(교장 오도균)에 각각 학교발전기금 300만원씩 600만원을 전달했다.

강 조합장은 두 학교의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2천300여 농민 조합원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고유의 가치이며 목적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어려지만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오창고 교장은 오창농협과 조합원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농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더욱 노력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에 애용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청원군 낭성면 송운장학회(회장 임현석·낭성면장)도 같은날 면

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야임사(대표이사 김대원)도 이날 청원고등학교(교장 곽노선)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임사는 2009년부터 해마다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장학금 3천800만원을 46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했다.

송운장학회는 낭성면 현암리 출신으로 국제산업학회장, 청주공업단지 이사장,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부총재, 청주 청원지구 유도회장을 역임한 고(故) 송운기 박형 선생이 사생 1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장학회로, 현재까지 총 269명에게 장학금 1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임 회장은 학생들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

는 것을 경영 활학으로 삼고 있다며 특히 청원고가 지역인재 양성 요람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칙칙했던 골목길이 산뜻해졌어요”

청주 사직1동 적십자봉사대
무심천 옹벽에 벽화 그리기



청주시 사직1동 적십자봉사대 회원들이 무심천 옹벽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적십자봉사대는 회원 100여명과 자동차 부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일 무심천 옹벽(100m)에 벽화를 그려 칙칙했던 골목길을 정감 있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꿨다.

이 사업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는 등 어두운 골목길을 밝기 위한 사직1동 특수시책인 정감 넘치는 골목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적십자에서 진행하는 RCY 국보사랑 에코프렌즈 환경캠페인과 더불어 추진한 것이다. 사직1동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5개소에 지역 주민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zero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멈춰! 프로그램이 도내 학교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중심 생활지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 중심 생활지도 컨설팅은 청소년의 일탈을 미연에 예방하고, 지

여 단위의 학교와 학부모, 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활지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 교육청은 옥천교육청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학교 관계자,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우수 사례 발표와 생활지도의 주요 핵심 이슈를 공유할 방침이다.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직원들은 낭성면 특화작물인 오미자 밭의 머 시설 설치 등 본격적인 오미자 재배를 위한 사전 작업을 펼쳤다.

농업인 유지철 씨(낭성면 지산리)는 군정 직원들이 군정 업무에도 비를 텐데 이렇게 농촌을 찾아 일손을 떨어져 무척 고맙다며 본격적인

교류와 학교와 학부모, 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활지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고령과 교통 불편으로 미용실을 찾기 힘든 노인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대화도 나누며

마을회관을 웃음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용미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6명으로 구성된 북면 미용봉사단이다.

농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용미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6명으로 구성된 북면 미용봉사단이다.

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계 고교학생 및 대학생이며 이중 지급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자립기금

고 대학교 재학 및 신입생으로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1년간 수업료 지원하고 대학생은 수업료 100만원(1회) 지원한다.

신청기준은 최저생계비 160%이하 국민건강보험료(월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차상위대상자 중 학비지

면, (주)장기네훈제나라, (주)풀무원, (주)CJ 푸드빌, 대광푸드, 농약국, 청주본가왕갈비탕금원점, 파리비게뜨(삼성)

◆ 음성한울사랑나눔푸드뱅크 (T. 878-4312)

- 삼아씨에프, (주)서울향토, CJ나눔재단, 트레이커리

◆ 전진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T. 536-0129)

- (주)승리푸드, 이삭식품, 화랑베이커리, 면사랑, 비르기아민두찌빵,

◆ 과산기초푸드뱅크 (T. 834-1377)

- (주)행복팀기, (주)한일푸드, (주)서울향토, CJ

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영동나눔기초푸드뱅크 (T. 744-4949)

- 두레쥬르, 모전하인, (주)정원식품, (주)서울향토,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충평기초푸드뱅크 (T. 836-6040)

- 단비상사, 던킨도너츠, 딜리밀리베이커리, 오

뚜기, 우연율류, 케이하우스, 파리비게뜨(내수), 피자헛 충주 칠금점

면, (주)장기네훈제나라, (주)풀무원, (주)CJ 푸드빌, 대광푸드, 농약국, 청주본가왕갈비탕금원점, 파리비게뜨(삼성)

◆ 음성한울사랑나눔푸드뱅크 (T. 878-4312)

- 삼아씨에프, (주)서울향토, CJ나눔재단, 트레이커리

◆ 과산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T. 832-3197)

- (주)서울향토,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

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기초푸드뱅크 (T. 873-2882)

- (주)오타케이씨엔티, (주)월팜, (주)이가자연

상업체

가정의 달 맞아 이웃사랑 확산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청주 곳곳에서 감지됐다.

대한제과협회 청주지회와 롯데푸드는 지난 2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동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케이크 211개를 선물했다.

롯데푸드의 후원을 받아 대한제과협회 회원들이 손수 만든 케이크는 늘푸른아동원과 협원원, 충북희망원, 충북아동원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211명에게 전달됐다.

운천신봉동 자율방범대(대장 이주희)는 지난 2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 57명에게 게임문구세트, 장난감, 피자 등이 담긴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지난날 운천



성안동 자원봉사대 회원들이 홀몸노인들에게 떡과 과일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버이날 맞아 홀몸노인 ‘후원 릴레이’

운천신봉 실버행복드리미
홀몸노인 50명에 카네이션

청주 수곡2동 주민센터는 어린이들 직접 쓴 손편지 전달

미와 동원타일도기상사 흥덕구 사운로) 이정복 대표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운천신봉동 지역 홀몸노인 50명을 일일이 찾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고 양말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이날 수곡2동 주민센터는 혼자 사는 노인 55명에게 사랑의 터치리지 역아동센터, 광성지역아동센터, 남부지역아동센터 어동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했다.

편지를 쓴 베이비소양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진 못했지만 편지를 쓰고 효도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

았다고 했다. 성안동 자원봉사대 회원들도 홀몸노인 20명에게 떡과 과일을 전달했다.

용답명암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저소득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랑의 행복밥집에 전달해 달라며 후원금 50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한번수 주민자치위원장은 용답명암산성동의 자랑인 행복밥집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렵지 않아 후원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봉동 자율방범대가 충북 베스트 방범대에 선정돼 받은 시상금과 천사 장난감, 김선숙 대표, 피자스냅 유상영 대표의 도움으로 더욱 풍성하게 마련됐다.

봉사단은 지난 1월 3일 오창을 성재리, 2월 7일 나이미면 구미리, 3월 7일 원미면 기암리의 마을회관에서 커트와 염색 페미 등을 통해 노인들의 머리를 허우고 허우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군내 최고 오지마을을 알려진 지역에 소전리 벌금지역 아동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충북대병원 의료봉사회는 수년째 매년 회비를 모아 후원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고 의료봉사를 펼치는 동우회로 이날 기탁된 쌀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 100곳에 1포씩 전달될 예정이다.

모충동 자원봉사대 회원 30명도 홀몸 노인 96기정에 임체 등 정성껏 만든 반찬과 떡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졌다.

황금반짜장(대표 손영훈, 중앙로 32)은 지난 3일 홀몸 노인을 초청해 자장면 등 중국요리를 대접했다.

글 료리 전문식당 글세상 이영월(상당구 봉동로) 대표는 지난 3일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초대해 점심을 제공했다.



북면미용봉사단이 오지마을을 찾아 미용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지마을에 ‘사랑의 가위손’

목련미용봉사단 3년째 청원지역에서 봉사활동

3년째 청원지역 오지마을을 돌며 미용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용미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6명으로 구성된 북면

마을회관을 웃음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용미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6명으로 구성된 북면

미용봉사단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용미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6명으로 구성된 북면

미용봉사단이다.

청주시, 청소년 학자금 신청 접수

청주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억원의

기금으로 마련한 이자 수익의 일부인 6천500만원을 청소년 학자금 지원하고, 대학생은 수업료 100만원(1회) 지원한다.

신청기준은 최저생계비 160%이하 국민건강보험료(월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차상위대상자 중 학비지

면, (주)장기네훈제나라, (주)풀무원, (주)CJ 푸드빌, 대광푸드, 농약국, 청주본가왕갈비탕금원점, 파리비게뜨(삼성)

◆ 음성한울사랑나눔푸드뱅크 (T. 878-4312)

- 삼아씨에프, (주)서울향토, CJ나눔재단, 트레이커리

◆ 전진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T. 536-0129)

- (주)승리푸드, 이삭식품, 화랑베이커리, 면사랑, 비르기아민두찌빵,

◆ 과산기초푸드뱅크 (T. 834-1377)

- (주)행복팀기, (주)한일푸드, (주)서울향토, CJ

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영동나눔기초푸드뱅크 (T. 744-4949)

- 두레쥬르, 모전하인, (주)정원식품, (주)서울향토,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충평기초푸드뱅크 (T. 834-1377)

- 풀무원, 임직원 칭찬김치, 중장식품, 생협연대

◆ 과산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T. 832-3197)

- (주)서울향토,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기초푸드뱅크 (T. 873-2882)

- 단비상사, 던킨도너츠, 딜리밀리베이커리, 오

뚜기, 우연율류, 케이하우스, 파리비게뜨(내수), 피자헛 충주 칠금점

면, (주)장기네훈제나라, (주)풀무원, (주)CJ 푸드빌, 대광푸드, 농약국, 청주본가왕갈비탕금원점, 파리비게뜨(삼성)

◆ 단양기초푸드뱅크 (T. 422-1700)

- 롯데칠성(오포), 농협금융센터, 서울우유 단양유리제작, 파리비게뜨

◆ 단양 푸드마켓 (T. 423-1299)

- 롯데칠성(안성공장), 파리비게뜨, 광주파리크

라상업체

◆ 단양기초푸드뱅크 (T. 422-1700)

- (주)서울향토,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기초푸드뱅크 (T. 873-2882)

- (주)오타케이씨엔티, (주)월팜, (주)이가자연

상업체

지원대상자 추천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오는 18일까지 거

주지 등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계 고교학생 및 대학생이며 이중 지급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자립기금

총부사회복지신문

빌법인 김 창 기 편집위원장 유 재 풍 편집고문 겸 주필 김 춘 길
(361-8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새 시대 효는 '상호 존중'

제72회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

성규탁 효연구소 소장 발제
새 시대 효 활발한 토론 전개
교통대 사회복지학생 학습도

5월 13일(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 이하 협의회)가 효행 문화 확산 및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72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새 시대의 효 : 전통-변화-적용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국제관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100여명과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장 및 사회복지 근무자, 증평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시작은 자광재단 한국효사상연구소 대표인 성규탁 소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성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새 시대 효 과제로 호혜적 세대간 서로 돌봄 지향, 확대된 사회적 효 시행, 젊은 세대의 인권 및 소견 존중, 새로운 노인상 정립, 평등한 남녀(친가/처가) 관계 지향, 생활 양식에 맞는 표현 방식 연구 개발, 다음 세대를 위한 진보적 효 교육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성 규탁 소장의 발제에 이어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며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인 김창기 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토론이 진행되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제72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이 진행됐다.

었다.

토론자로는 김춘길(충북사회복지 신문 편집고문 겸 주필), 심의보(충북노인종합복지관장), 연기봉(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노인대학장)이 참여하였다.

김춘길 주필은 효는 인간관계의 으뜸덕목이라는 주제와 함께 한국 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논하며

리고, 부모와 자식 입장에서의 효의 다른 의미에 대해 토론을 벌쳤다.

이어 심의보 관장은 효의 본질과 실천적 원리에 대해 말하며 인간다운 삶을 향하여, 효사상의 본래적 의미, 효문화의 실천적 원리, 효행의 생활화를 위하여라는 4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연기봉 학장은 효 교육의 실태를 논하며 노인대학

을 통한 효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창기 회장은 이번 충북사회복지포럼을 통해 효행 문화의 확산 및 복지공동체 구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가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어르신들 대상 이 미용 봉사

가정의 달 맞아 따뜻한 점심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가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과 이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건강하세요!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11일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에서 나우리회, 다사랑회, 애심회,

충북프랜차이즈협회 등 충북도사회

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 7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에게 제공

1200인분의 점심을 준비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였다.

점심을 준비하는 한 켠에는 어르신들께 드릴 떡 포

장이 한창이었으며 이 미용봉사활

동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었다.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 대원이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이러한 무료급식에 많은 분들이 참

여하여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 며

소회를 밟았다.

한편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가

정의 달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나눔과 자원봉사 확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가정의 달 기념 무료급식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우리지역 삶의 질 보장을 위한 8대 주요 의제

인권의 가장 기본은 주거복지입니다.

-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보조로 저녁이 있는 주거

생활이 안전해야 지역사회가 행복합니다.

-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안전을 만들자

지역민이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성장합니다.

-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예방 프로젝트 보건소에서 늘자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 사회적경제 시장을 통한 사람

이 중심이 되는 착한 일터 착한 일자리

사람다운 삶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필요합니다.

- (충북/청주)형 기초생활보장제

도 만들기 가능한 걱정 없는 우리동네

우리지역 삶의 질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 민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 뚫렸거나

우리지역 교육은 평등을 지향합니다.

- 초등학습 교재교구비 & 중고

동북아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비

걱정 떠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사회자

본입니다

-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행

복지자이너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합니다

우리지역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능별 의제

주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공간 우리집

우리지역 주거복지 허브 지방

정부별 주거복지센터 운영

부담 없고 안정적인 대학생 주거지원 대학 없는 곳에 대학가를 만들자

사람다운 삶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필요합니다.

- (충북/청주)형 기초생활보장제

도 만들기 가능한 걱정 없는 우리동네

사람을 향합니다

우리지역 복지주소는 나눔(도), 인권(시·군), 권리(구), 행복(동), 성장(리)입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에서는 6.4

안전

무장애도시만들기 사람을 향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상해

보험 가입 걱정마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생명지킴이

응급 병원이송 체계 구축&강화

우리동네 범죄예방 프로젝트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합니다

놀이를 통해 건강한 성을 배우는 아동청소년 성문화놀이터

건강

아동, 노인에게 건강한 면거리

를 선물하는 건강 과일바구니

생애주기별 무료필수 예방접

종으로 질병 걱정 끊

신생아&산모의 건강한 출산환

경 지원 공공행 신후조리원 설치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서

비스 집으로 달려갑니다

사회적 약자

당사자형 주민참여예산 복지

예산 우리가 결정한다

복지소외계층 기초생활 필수

품 지원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활동적 노년기를 위한 노인사

회참여활동 청춘공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친화형 사회기반시설 조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행동하는 복지연합 및 시·군·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충북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복지의제를

발굴하고 도시사후보에게 제안할 공약을 확정하였다.

건강증진을 위한 친절한 방

문간호 하우스케어

간병 부담 없는 우리지역만들

기 보호자없는 병원

일자리

청년 일자리허브 센터(부설, 청

소년 아르바이트 센터)

중증 장애인 복합형(창업 전

시) 커뮤니티 공간 행복카페 운영

찾아주고 만들어 주고 맞추어

주는 드림직업제작소

성 거리에서 만나는 복지

자활근로 참여 사회환경 조성

으로 빙곤돌출, 자립기반 마련

신뢰 배려 공유 협력의 복

지공동체 삶의 질 거버넌스 구축

제가노인복지서비스 통합정보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충북/사각

해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임금

급포준안 마련

모든 사회자본을 공유한다

나눔수록 + 키는 공유(충북)

돌봄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

한 좋은 돌봄일자리 창출

사회복지관내 사례관리센터

설치 운영

기업과 시민의 사회공헌 소통

창구 사회공헌허브센터

교育

고교무상교육(급식) 전면추진

아동의 인권보호&건강한 성장

을 지원하는 광역아동통합지원센

터

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를 통한 장애인의 학습권 지원&보

장

취약계층 자립 지원 및 충북

“충북은 효의 고장… 부자자효, 만고의 진리”

(父慈子孝)

성규탁 한국효사상연구소 대표

(鄉約)을 발상하여 전국으로 전파했으며, 유교의 효 중심 가르침을 확산한 사립운동의 중심이 이루었던 역사적 고장이다. 이같은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갖춘 충북은 이제 효의 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재실행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 충북의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의 필요성과 그 역점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

정부에서 제정한 효행장려법을 기준으로 충북의 효 관련 단체들이 합의하는 특수 조항을 부여함으로써 부설할 수 있다. 그리고 합의에 따라 별도로 고유한 내�权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효 운동의 기본 방향과 전개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위한 효 문화 재정착과 과정에서 가정에서의 사회화와 학교에서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효의 이념에 따라 부모와 자녀, 어른과 젊은이, 가족과 이웃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블로깅 공동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와 관련된 단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정립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에너지를 규합, 충북을 피하고, 효 운동과 효 교육에 적용될 공동체 말고 표현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분담하고 정치성을 배제하는 한편 수시로 회합, 공동의 관심사에 합의하는 나야 한다. 과거와 같이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며 억압적인 효 교육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효 교육과 효 표현 방식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수정돼 나가야 한다. 효 운동이 실현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김춘길 편집고문 겸 주필

또한, 1억4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를 파견해 실버아가, 손마사지, 노래교실 등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돌보미(20명), 9988지 키미(38명)를 대상으로 폭염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 24곳에 사업비 약 8000만원을 투입해 방수공사, 바다공사, 장판, 도배, 청사를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포함해 105곳에 각각 7, 8월에 5만원씩 여름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염방지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포함해 105곳에 각각 7, 8월에 5만원씩 여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염방지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포함해 105곳에 각각 7, 8월에 5만원씩 여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염방지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포함해 105곳에 각각 7, 8월에 5만원씩 여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염방지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포함해 105곳에 각각 7, 8월에 5만원씩 여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염방지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포함해 105곳에 각각 7, 8월에 5만원씩 여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염방지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포함해 105곳에 각각 7, 8월에 5만원씩 여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염방지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 중이다.

</div

충북도내신협, 사회공헌활동 '활발'

상당신협, 김장김치 나눔, 조합원 대상 문화교실
중부신협, 폐품 판매 수익금 소외계층에 사용

충북도내 신협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청주 상당신협과 중부신협의 최근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청주상당신협
상당신협은 조합원 장수사진 활영 이 미용 세탁봉사 봉사 봉사 나눔 이웃돕기 행사 창 학 금지급 등에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65세 이상 조합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하고 있는 이미용봉사는 매번 30~40명이 찾아온 정도로 반응이 가장 좋다.

풍란전시회를 매년 열어 전시회 기간 성금을 모아 전액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있다.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1명에 4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내 아파트 경로당 생필품 지원, 시랑의 쌀 후원, 사랑의 행복밥집 후원금 지급 등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한 사람의 김장김치 나눔행사의 경우 매년 치를 계획이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어어로비, 요가, 노래, 골프 등 문화교실도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데 요가교실의 경우 해마다 1천200명이 수강을 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이재복 팀장은 현재 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앞으로 더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며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청주중부신협

중부신협은 사회공헌활동이 조합 경영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봄소 증명하고 있다.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전 직원이 뭉쳐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골몰하고 있다.

올해 경영 방침을 봉사와 나눔 경영의 해로 정하고 소망의 집 방문 사망의 빈한 나누기 장학금 지원 경로당 쌀 지원 폐 휴대폰 렌트 신발 소주 병 뚜껑 모으기 운동 등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난달부터 시작한 폐 휴대폰 한 푸 신발 소주 병 뚜껑 모으기 운동은 조합원의 참여율이 높아 현급 동안 18만원을 모았다.

1년 동안 모아진 폐품 판매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봉명2동과 북대동 내 초·중·고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학교에 100만원씩 전달하고 있고 관내 노인정에 매년 쌀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어린이들이 어려서 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경제 관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진흥초등학교에 어린이 신협을 열기도 했다.

정진규 상무는 올해 조합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온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조합원들이 서로의 가치를 알고 그들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신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부모 아카데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4월 30일(수)부터 6월 4일(수)까지

심리정서지원 사업 솔루션통합사례회의 간담회

아동 맞춤형 문제행동개선 프로그램 방향 논의 발표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현숙)는 4월 29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2014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솔루션통합사례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솔루션통합사례회의는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육시설에서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상담 회를 가졌다. 현재 프로그램 진행

사항 보고와 향후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중 심리 정서 인지 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개별구역에 맞는 맞춤형 문제행동개선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심리정서적 안정감 회복을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에 서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 아카데미 시작해요"

청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양육부모 대상

청원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민용순)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아카데미를 4월 30일(수)에 시작하였으며, 첫 번째 강의에서는 애니어그램을 통해 양육자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부모 아카데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매주 1회 실시하며 장애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장애인 가족 힐링캠프, 동료상담과 사례 관리사 양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용순 청원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과 위기 예방, 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실천하고자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청원군으로부터 위탁받아 2014년 1월 개소했다.

현재 사례관리 및 상담을 바탕으로 장애인자녀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장애인 차별 전화상담,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가족 힐링캠프, 동료상담과 사례 관리사 양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용순 청원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과 위기 예방, 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실천하고자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청원군으로부터 위탁받아 2014년 1월 개소했다.



문성레저개발, 충주에 훨체어 기증

모두 41대 기탁

총

주

기

부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

기

증</p

“골목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

청주 서원초 근교 골목

지역아동지킴이 출범

청주 서부종합복지관에서는 4월 11일(금) 복대2동에 위치한 서원초 등학교 근교 골목에서 지역아동지킴이 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지역 및 아동 관련 유관기관인 복대2동 주민센터, 복대2동 통장협의회, 복대2동 남 여 자율방범대, 서원초등학교, 백양지역 아동센터,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미라클지역아동센터, 청주시니어클럽이 함께 참여했다.

발대식에 이어 풍기타 음악공연, 아이들과 함께하는 벽화그리기, 안전한 먹거리(라피자, 올리시티, 행복 카페-커피)와 아이들의 추억의 놀이(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무줄 놀이, 짜이치기 등)로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며 소통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약 15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지역주민은 골목에서 축제하기는 처음인 것 같았는데 재미있었고, 골목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야겠구나



서원초교 골목에서 아이들이 딱지놀이를 즐기고 있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라고 밝혔으며, 참여한 아이는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놀이를 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총 6번의 골목축제가 진행될 계획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자리로서,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건전한 골목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형성하고 활성화해가고자 한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진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 원예치료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병세)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4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 반 사회통합반 이용자 10명이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원예치료 프로그램 하늘정원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및 사회성 향상, 정서적 심리 적 안정을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늘정원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 3층 옥상에서 상자텃밭 만들

기, 모종과 야주심기, 텃밭작물 재배법, 수확 관리법 등을 배운다고 한다.

이번 하늘정원 담당자는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며 지적장애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훈련생과 자원봉사자만의 텃밭이름을 정하여 상자텃밭에 이름을 붙이고 매일 상자텃밭의 재소가 자라나는지 확인하는 훈련생들의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라며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지원비용 지원해 주신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으로 변화수용 및 관계설계, 여가설계, 내면설계, 경제설계, 희망설계의 영역으로 나뉘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청주시생활학습관 우수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은퇴한 어르신의 제3기 인생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망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가경노인복지관(043-236-0111)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은퇴! 자신을 찾아가는 2막’ 프로그램 개강

청주가경노인복지관 12일부터 총 25회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강신옥)에서는 사회에서 은퇴한 만 55세 이상 남 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25회기에 걸쳐 은퇴! 자신을 찾아가는 2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은퇴! 자신을 찾아가는 2막 프로그램은 은퇴 후 성공적 노화 및 제3기 인생설계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수용 및 관계설계, 여가설계, 내면설계, 경제설계, 희망설계의 영역으로 나뉘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청주시생활학습관 우수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은퇴한 어르신의 제3기 인생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망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가경노인복지관(043-236-0111)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어르신 정보화 교육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이 지난 3월 10일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층 정보격차해소 집합 정보화교육 강좌를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컴퓨터 활용 교육은 충북도 청주지역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12월 30일 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컴퓨터 활용이 어려워던 지역 어르신

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컴퓨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권오경 어르신(73세)은 컴퓨터 작동이 쉽지 않아 고민하면서 차례 복지관에서 교육을 마련해주고 강사님이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주어서 매우 고맙고 즐겁다. 라고 환영해 했다.

총 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심의보)과 충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은 4월 14일 월요일 11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본 협약은 어르신 영어체험 과정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 기관 간의 협력이며 협력이 주요 내용이며 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어르신 모집을 통한 교육 진행을 추진 예정이다.

한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심의보 관장은 실버세대 실용 영어 문화의 향유를 위한 수준높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의 장이 일반화되는 좋은 기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소득 청소년·어르신에 웃음 선사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

청소년 꿈지원 장학금 전달식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 충북지구(이광우부총재) 1.2.3지역(청주, 청원) 회원 20여명은 4월 16일(수)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와 청소년 꿈지원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장영진 관장) 용암주공아파트 단지내 어르신 150여명 대상 행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으로 점심식사와 과일 등을 대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은 물론,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 공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능 있는 청소년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꿈지원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잠재적 재능을 향상시키고 꿈을 이루고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부총재 이광우, 박용건 비롯해 지역위원장, 최충진, 유인숙, 장홍렬, 박해성, 김해용, 반준환등 지구임원이 참석했고,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백성종 관장직무대상 행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석한 라이온스 충북지구 이광우 부총재는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준비한 마음보다 더 크고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라이온스 충북지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 충북지구 1.2.3 지역(청주, 청원)은 이렇게 매년 청주, 청원내 외로운 드디어 어르신 찾아가 식사대접은 물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장장난감 무료로 고쳐드려요”

청원 장난감대여센터 와글와글 장난감병원 개소

청원군 장난감대여센터가 지난 2일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와글와글 장난감병원 개소식을 갖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날 문을 열 장난감병원은 장난감 대여 후 고장이나 훼손된 곳을 수리하고 세척해 장기 이용과 대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장난감병원에는 접수대, 진료대, 장난감보관함, 수리물품보관소, 소독기(5단계 세척), 기저귀 교체대,

장난감 택배(포장)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또 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노인을 장난감의사로 임명하는 등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도 넓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난감병원 오픈으로 질 높은 대여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을 깨끗이 관리해 영 유 아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충장복 사랑나눔 도서 지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정형편이 열악한 재가장애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도서 및 학습용품 지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유도, 성장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도록 하고자 회망나눔서비스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법석) 진천분관에서는 지역 내 도서업체(진명서립 진천점 소재)의 후원으로 2014년 5월 2일(목) 재가장애인 자녀 10명에게 충장복 회망나눔서비스를 통해 도서 및 학습용품을 제공했다.

한편 진명서립 대표는 이번 도서 지원 나눔행사를 통해 후원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층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기부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학생외국어교육원 노인 영어 의사소통·교육력 향상 MOU

총 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심의보)과 충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은 4월 14일 월요일 11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심의보 관장은 실버세대 실용 영어 문화의 향유를 위한 수준높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의 장이 일반화되는 좋은 기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부권 최고의 로펌 청주로! 7명의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CJ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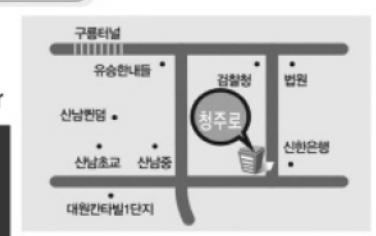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CHEONGJU LAW**

청주의 법률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박종일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 변호사 명지성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7층(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 043-290-4000(대표전화) F.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 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 공증 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복지진단

가족친화 정책과 경영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김 준 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계절의 여왕 5월의 달력은 행사들로 가득 차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빌드로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아버지날, 11일은 임상의 날, 18일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 19일은 발명의 날이자 성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22일은 가정위탁의 날, 25일은 실종아동의 날 등 등

5월은 특히 가족과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 특히 5월 15일 많은 사람이 스승의 날로만 기억하지만, 가정의 날 이기도 하다.

가정의 날은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UN)총회에서 변화하는 현세계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매년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실시되면서 가정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화되었다.

고사성이 중에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기쁨만 사성(家和萬事成) 이란 말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을 소홀히 하다 보면 일도, 가정도 제대로 풀기지 못한다는 얘기도 해석된다.

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매일 혼자 아근을 했다고 한다. 프랑스인 입장은 무슨 짓이나 더 다했고 한국인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한다. 덕분에 당신 성과도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런데 텅장이 크게 꾸짖었다. 당신은 오랜 세월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당신을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있는 맛있는 삶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고 했다고 한다.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에 달한다.

OECD국가 평균인 1,764시간보다 492시간이 많다. 과중한 근로의 결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남성의 경우 하루 1시간 2분, 여성은 하루 3시간 52분으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일에 매여 있는 셈이다.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일과 가정의 압박을 위해서도 이

러한 근로문화와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가족친화정책이란 기업과 정부가 법과 제도, 프로그램,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남녀 근로자가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친화정책은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에 준하는 조례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고, 직원과 그 가족의 행복도를 높여줌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저출산 및 고령화문제를 해결해 주는 효과가 있다.

워킹맘을 위해 사내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시로 가족들을 회사로 초청해 유대를 쌓아가거나 CEO(최고경영자)들이 직원들의 가장 구성원들에게 손편지를 쓰는 등 경조사를 행기는 곳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내친김에 회사일을 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정시점에 의무적으로 출전을 위한 리프레시 휴가를 보내는 곳도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평소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독려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가족의 행복한 삶이 직장생활의 가장 강력한 동기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가정의 날 바쁜 업무로 부족해질 수 있는 가족과의 대화시간을 회복시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안정을 바탕으로 회사생활의 몫임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의 날을 시행하는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성인예산은 어떻게 도입되었나?

국내에서는 여성단체의 예산운동과정에서 성인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 여성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성인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제정된 성인예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동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성인예산과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예산이 왜 필요한가요?

예산은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

▣ 복지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정책 · 예산 배분 잘해야 성 평등 실현 빨라져

우리나라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성인지 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좀 더 성평등한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념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은 2013년 현재 OECD회원국 34개국 중 33위로 남녀 간 격차가 큰 나라에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성인예산제도

성인예산 제도는 무엇인가요?

성인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근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성인예산은 어떻게 도입되었나?

국내에서는 여성단체의 예산운동과정에서 성인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 여성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성인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제정된 성인예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동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성인예산과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예산은 왜 필요한가요?

예산은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담당자 워크숍.

성인지 예산 늘려 제3의 분야에 중립적 지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등 대책 수립하는게 중요

독거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중점관리 등

성별영향평가 노력후 노인 자살예방 감소효과

며, 예산의 분배구조는 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다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성별평등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 차별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 지원 예산이 감소되면 여성의 무급돌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제한될 것입니다. 이렇듯 성별로 무관해 보이는 사업에 대한 성인예산을 분석하여 지방의 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와 시군은 2012년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예산을 분석하여 지방의 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예산은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은 처음으로 성인예산을 분석하여 사업에 대한 성인예산을 분석하여 지방의 회에 제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정책 개선 사례

임산부 여성 배려 주차장

당진군 보건소는 임산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및 여성 배려 주차장 5면을 설치했습니다. 임산부 배려 주차장은 주차 편의와 3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 시 편리하도록 일반 주차장보다 주차면적을 넓혔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서도 여성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하는 일

충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12년 9월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충북 여성발전센터에서 위탁운영중이며, 충북도 및 교육청, 시군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컨설팅지원, 다양한 연구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충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도내 4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각종 사업 및 자체법규,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유통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난 후, 남성 독거노인의 자살률 예방하고자 46명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주제로 배치하고 노인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인예산 중증의 지하철 손잡이 개선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남성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약 167cm)

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나 노인, 남성들보다 평균 신장이 작은 여성들은 손잡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어왔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난 후,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8호선 각 1편(8량)의 객차마다 기존 167cm보다 10cm 낮은 위치에 손잡이 16개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지하철 9호선 객차에는 지하철 손잡이가 남성용(179cm)과 여성용(163cm)

cm)으로 변경해 설치되었습니다.

5.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하는 일

충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12년 9월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충북 여성발전센터에서 위탁운영중이며, 충북도 및 교육청, 시군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컨설팅지원, 다양한 연구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충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도내 4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각종 사업 및 자체법규,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유통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난 후, 남성 독거노인의 자살률 예방하고자 46명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주제로 배치하고 노인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인예산 중증의 지하철 손잡이 개선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남성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약 167cm)

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나 노인, 남성들보다 평균 신장이 작은 여성들은 손잡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어왔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난 후,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8

호선 각 1편(8량)의 객차마다 기존 167cm보다 10cm 낮은 위치에 손잡이 16개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지하철 9호선 객차에는 지하철 손잡이가 남성용(179cm)과 여성용(163cm)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성폭력특별수사대 :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담반)

아동·장애인, 중요 학교폭력, 중요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악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내에 마련된 성폭력 전무수사팀 피해자 조사 및 의료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반(충북원스톱지원센터)과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담당하는 단속반으로 구성·운영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지원내용

- 여자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24시간 근무하며 피해사례 접수시 상담 및 영장진술녹화(심리전문가 참여)를 통한 피해자 죽사
- 청주의료원과 연계하여 피해자 응급치료 및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피해자 의료지원(성폭력 응급 키트) 실시
- 기타 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법률지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곳곳에서 은밀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히합니다.

이젠 아동·장애인 전문수사팀인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알려주세요!

신고 전화 주간 : 043)240-2647(성폭력 특별수사대) 야간 : 043)272-7117(원스톱지원센터)
학교폭력 : 117 H·P : 010-4778-3155

6.4 지방선거, 잘 보고 잘 선택하자

김춘길
편집고문 겸 주필

다음 달 치러지는 6.4지방선거에서 충북 유권자들은 어떤 인들을 선택해야 할까. 이는 충북도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안목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음에 다름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선거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정치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때, 충북의 지방자치수준도 충북도민의 정치수준과 비례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내 유권자들은 그 수준에 맞는 인물을 선출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이 기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면 우선 그 정본인을 성토하기 전에 그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자책(自責)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지연 학연 혈연 관연 등에 의해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투표에 임박해서는 우리가 남인가 하는 연고의식에 힘들되어 신성한 한 표 주권을 행사했던 타성에서 올해 민들은 벗어나야 한다. 절로 투표했다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선 충북도지사 선거 문제를 보자.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인 이시종 지사와 윤진식 새누리당 예비후보 간에 결판날 것이 분명한 충북지사 선출은 두 후보의 경력이나 역량 등이 난항新区이다. 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행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엿보인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사회복지계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충북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내 시군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직능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성안한 복지 충북 7대 공약 및 그 영역별 77대 공약 등의 실행에 의혹적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도자사 4년 임기 중에 충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식의 과장포부를 밝히는 후보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위기상황과 재난 등의 발생 시 강력한 리더십과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 수습 과정에서 표출된 중앙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무능력을 반면교사 [反面教師]로 삼아 충북 도지사는 위기대처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 이 점은 시장군수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다음으로, 충북교육감 선출 문제에 있어서는 예비후보들의 자격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배제돼야 할 후보와 공약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 차기 교육감은 공짜 선심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경계해야 한다.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현장에 학력을 신장시키면서 학생들의 비른 성품과 정의 예절 정조정신 사람 등을 교육하는데 철학적인 지원자가 되고 교육복지 실현 등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교육감을 해보겠다는 후보가 선심성 정치공약이나 공짜심리 등을 양산하고 있다면 그런 후보는 마땅히 충북 보통교육계 수장[首長]으로서의 설 땅이 마련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출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 시 군의 종합행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냉철한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시종일관 주민들의 진실한 면모이 되어 주민들의 속원을 풀어가면서 신하 공직자들의 기강을 단호하게 확립,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관내 국회의원에 맹종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꾼은 안 될 것이다. 도의회의원이나 시군의회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생사고리를 함께하면서 민의를 대변,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인들을 선출해야 한다.

소속 정당의 물려대가 되어 사건건 집행부를 불합리하게 압박하면서 자기파악성 활동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아예 충북 지방의회 무대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피성·병역미필자나 파렴치법 전과자 등도 철저히 외면해야 할 것이다.

체·힘·수·기

봉사하는 삶으로

최병호
다사랑봉사단

라 개네 고모부는 한전 경리과장이고 고모는 시내에서 전기부속 가게를 한다. 고 늘어놓으니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양가의 어른들이 만나 약혼을 주선하고 그 날부터 잘 마련된 술도 끊고 결혼하여 잘 지내는데 옆집 친구 누나가 얘기하기를 이모부한테 10년 불이 있어봐야 나갈때 쉽담 원 밖에 안 출 거라고 얘기해 주었다.

장사한지 4년 지나 거기서 나오고 동생도 제대하여 오고어서 장사는 잘 되는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 절에 가서 100일기도를 해도 소용없자 안식구가 되었다.

어디 가서 여자를 얻어 서라도 아기를 데려 오라해도 그냥 저냥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 병원에 가보니 임신 4주째라 하여 집으로 한걸음에 달려왔다.

결혼 6년차에 첫 딸을 낳고 이 세상을 다 믿은 것 같아 좋았다.

그러던 중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주변에 있는 분이 선거 운동을 같이 해보자 하기에 젊은 폐끼에 푸르지는 바람에 보험도 안 되고 십년 되면 해 강원도에서 청주로 내려와 1974년 청주대학에 들어가 근무하다 정년 퇴임을 하고 늘기로 심심해 친구의 소개로 충북대학에 들어가 용역경비로 들어가 학년을 극복하였다.

안식구도 분식잔사를 하다가 그 만두고 같이 충북대 청소 용역으로 들어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며 근무하다가 당뇨가 와서 음식조절을 해야하는데 심해져 집에서 치료받으며 지내다 시간 나면 둘이 손잡고 두 시간씩 걸기운동도 하며 지내다 결국엔 병원신세를 지고 3년 동안 나의 간호를 받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나도 척추 장애를 갖게되어 일은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기 너무 아까워 풍물도 배우고 민요도 배우며 풍물은 대상을 두 번 타고 민요도 대상을 한 번 밟았다.

지금은 다사랑봉사단에 들어가 배운 것을 노인요양원이나 우암시니어클럽에서 6년째 매달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

2013년 음에는 글쓰기 교실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며 남은 인생을 불태우고 있다.

이 육신이 무너지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를 것이다.

담쟁이

칼럼 Column

임동현
사단법인 정검다리 대표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마다 담쟁이는 말 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풀 살이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뱀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끌어고 있을 때 담쟁이 일하나는 담쟁이 일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시인 도종환)

비통함과 슬픔이 밀려온다.

성수대교 붕괴, 심풍백화점, 씨랜드 사고, 대구 지하철 사고, 그리고 얼마 전 경주리조트 사고 21년 전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온갖 부정부패와 부실 비리로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라도 하고 벌인 것 같은 점으로 부끄러운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날은 관제(官災)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에 유례 없는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썼다는 평가를 받은 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스스로의 자족에 빠져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 모두가 적었다. 미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적 감적으로 테러인가 떠올리고, 일본에서는 지진인가 떠올리며, 한국은 부실공사인가 떠올린다는 얘기였다.

그냥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현실로 미루어 농담은 분명 아닌 것 같다.

참으로 부끄럽기 짙이 없는 이 3국의 비교 저 농담도 이제는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 어떤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미국은 여전히

이제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국가와 정부에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나누어 절여야 할 모두의 책임무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모두가 겪어한 자세로 자신의 참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안했던 4월 무렵 하나 해보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꽃들을 꺾어 보내야 했던 아픔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어 기억되어질 것이다.

이제 5월 따스한 봄 햇살과 출근 불꽃 화사한 꽃들 연둣빛 새잎들이 녹색으로 변하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생명력이 넘치는 화사한 계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이어지는데 그정의 달 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계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서 이 작은 행복한 시간마저 앗아가 버린 것 같다.

아니 모든 게 달라 보인다.

절망과 분노 더 나아가 자괴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꿈과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은 분명 대한민국을 다시 후진국으로 되돌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니 어쩌면 진정한 제 자리를 찾

책임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냉철한 인식 갑작이 요구되고 있다. 시종일관 주민들의 진실한 면모이 되어 주민들의 속원을 풀어가면서 신하 공직자들의 기강을 단호하게 확립,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관내 국회의원에 맹종할 가능성이 있는 점玷은 뽑아서는 안 될 것이다. 도의회의원이나 시군의회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생사고리를 함께하면서 민의를 대변,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인들을 선출해야 한다.

소속 정당의 물려대가 되어 사건건 집행부를 불합리하게 압박하면서 자기파악성 활동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아예 충북 보통교육계 수장[首長]으로서의 설 땅이 마련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강원도로 돌아가 근무하다 정년 퇴임을 하고 늘기로 심심해 친구의 소개로 충북대학에 들어가 근무하다 정년 퇴임을 하고 늘기로 심심해 친구의 소개로 충북대학에 들어가 용역경비로 들어가 학년을 극복하였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 서 제대하여 대통령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군 생활할 때 5.16혁명이 일어나 얼굴은 본적이 없지만 존경하는 지도자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주변에 있는 분이 선거 운동을 같이 해보자 하기에 젊은 폐끼에 푸르지는 바람에 보험도 안 되고 십년 되면 해 강원도에서 청주로 내려와 1974년 청주대학에 들어가 근무하다 정년 퇴임을 하고 늘기로 심심해 친구의 소개로 충북대학에 들어가 용역경비로 들어가 학년을 극복하였다.

그 곳에는 나보다 먼저 와 있는 동생도 있어 나는 좋았는데 동생은 별로였고 이모부의 성격을 파악해서인지 나를 집으로 내려가라 기에 이용 으웠으나 그때는 젊어 돈을 벌어야겠다고 일상이나 대학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동생이 군에 입대해서 이모부와 같이 가게를 보고 있으니 고장생각이 당뇨가 와서 음식조절을 해야 하는데 심해져 집에서 치료받으며 지내다 시간 나면 둘이 손잡고 두 시간씩 걸기운동도 하며 지내다 결국엔 병원신세를 지고 3년 동안 나의 간호를 받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나도 척추 장애를 갖게되어 일은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기 너무 아까워 풍물도 배우고 민요도 배우며 풍물은 대상을 두 번 타고 민요도 대상을 한 번 밟았다.

지금은 다사랑봉사단에 들어가 배운 것을 노인요양원이나 우암시니어클럽에서 6년째 매달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

2013년 음에는 글쓰기 교실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며 남은 인생을 불태우고 있다.

그 곳에는 나보다 먼저 와 있는 동생도 있어 나는 좋았는데 동생은 별로였고 이모부의 성격을 파악해서인지 나를 집으로 내려가라 기에 이용 으웠으나 그때는 젊어 돈을 벌어야겠다고 일상이나 대학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동생이 군에 입대해서 이모부와 같이 가게를 보고 있으니 고장생각이 당뇨가 와서 음식조절을 해야 하는데 심해져 집에서 치료받으며 지내다 시간 나면 둘이 손잡고 두 시간씩 걸기운동도 하며 지내다 결국엔 병원신세를 지고 3년 동안 나의 간호를 받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나도 척추 장애를 갖게되어 일은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기 너무 아까워 풍물도 배우고 민요도 배우며 풍물은 대상을 두 번 타고 민요도 대상을 한 번 밟았다.

지금은 다사랑봉사단에 들어가 배운 것을 노인요양원이나 우암시니어클럽에서 6년째 매달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

2013년 음에는 글쓰기 교실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며 남은 인생을 불태우고 있다.

이 육신이 무너지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를 것이다.

서민층 LP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시행

LPG호스는 노후되거나 파손으로 사고우려가 있어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 사업대상 | LP가스 호스설치 주택(서민층)
- | 사업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무료 설치
- | 문의처 |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 모든 LP가스 사용주택은 2015. 12.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미 이행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 KGS 한국가스안전공사

6.4 지방선거, 잘 보고 잘 선택하자

그렇지만 구체적인 행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엿보인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사회복지계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충북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내 시군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직능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성안한 복지 충북 7대 공약 및 그 영역별 77대 공약 등의 실행에 의혹적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도자사 4년 임기 중에 충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식의 과장포부를 밝히는 후보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위기상황과 재난 등의 발생 시 강력한 리더십과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 수습 과정에서 표출된 중앙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무능력을 반면교사 [反面教師]로 삼아 충북 도지사는 위기대처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 이 점은 시장군수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다음으로, 충북교육감 선출 문제에 있어서는 예비후보들의 자격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배제돼야 할 후보와 공약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 차기 교육감은 공짜 선심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경계해야 한다.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현장에 학력을 신장시키면서 학생들의 비른 성품과 정의 예절 정조정신 사람 등을 교육하는데 철학적인 지원자가 되고 교육복지 실현 등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교육감을 해보겠다는 후보가 선심성 정치공약이나 공짜심리 등을 양산하고 있다면 그런 후보는 마땅히 충북 보통교육계 수장[首長]으로서의 설 땅이 마련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소속 정당의 물려대가 되어 사건건 집행부를 불합리하게 압박하면서 자기파악성 활동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아예 충북 보통교육계 수장[首長]으로서의 설 땅이 마련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군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막상 가방끈이 짧아 쥐의 되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데 옆집 친구 누나가 얘기하기를 이모부한테 10년 불이 있어봐야 나갈때 쉽담 원 밖에 안 출 거라고 얘기해 주었다.

장사한지 4년 지나 거기서 나오고 동생도 제대하여 오고해서 장사는 잘 되는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 절에 가서 100일기도를 해도 소용없자 안식구가 되었다.

어디 가서 여자를 얻어 서라도 아기를 데려 오라해도 그냥 저냥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 병원에 가보니 임신 4주째라 하여 집으로 한걸음에 달려왔다.

결혼 6년차에 첫 딸을 낳고 이 세상을 다 믿은 것 같아 좋았다.

그러던 중 정사가 사향 길에 접어들어 끝내고 대한생명 보험회사를 들어갔으나 무진이라는 금융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보험도 안 되고 십년 되면 해 강원도에서 청주로 내려와 1974년 청주대학에 들어가 근무하다 정년 퇴임을 하고 늘기로 심심해 친구의 소개로 충북대학에 들어가 용역경비로 들어가 학년을 극복하였다.

안식구도 분식잔사를 하다가 그 만두고 같이 충북대 청소 용역으로 들어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며 근무하다가 당뇨가 와서 음식조절을 해야 해야하는데 심해져 집에서 치료받으며 지내다 시간 나면 둘이 손잡고 두 시간씩 걸기운동도 하며 지내다 결국엔 병원신세를 지고 3년 동안 나의 간호를 받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나도 척추 장애를 갖게되어 일은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기 너무 아까워 풍물도 배우고 민요도 배우며 풍물은 대상을 두 번 타고 민요도 대상을 한 번 밟았다.

지금은 다사랑봉사단에 들어가 배운 것을 노인요양원이나 우암시니어클럽에서 6년째 매달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

2013년 음에는 글쓰기 교실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며 남은 인생을 불태우고 있다.

이 육신이 무너지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를 것이다.

지역 단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한국암웨이 ABO희망비타민
자원봉사단 지원사업
내가 만든 종이세상

북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창호)은 지난 4월 11일(금) 방과 후 교실 아동 15명과 한국 암웨이 봉사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접기로 벽시계를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다. 크기가 다른 종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접은 다음에 모두 겹쳐서 등그란 모양을 만드는 활동이 진행되었고 아이들과 봉사자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모든 아동들이 자신만의 벽시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한국암웨이 지원사업은 앞으로 12월까지 진행되며 2월부터 7월까지는 종이접기 교실이 실시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북아트 교실이 진행된다. 앞으로도 수업마다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이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뿐 아니라 멘토 역할을 하여 아동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성 증진에 도움을 예정이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추가모집

충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조보영)가 자원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추가모집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시에는 7일 세로 할인가맹점을 신청한 파리바게트 문화점을 비롯해 88개 업소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한 봉사자에게 밥값해주는 사랑나누기통장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이용시, 약정 할인율 만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중의 하나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을 통해 가맹점소는 매출증대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신청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나 충주시자원봉사센터(850-7438)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청전동통장협의회,
공병 모아 이웃사랑 실천

제천시 청전동 통장협의회가 뉴새마을 운동 실천 일환으로 매월 통장협의회가 있는 날마다 이웃사랑 공병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전동 53명의 통장들은 각 통별로 수집한 공병을 이날 봉사무소로 가져와 일괄 매각하고 그때 얻어진 수익금으로 일말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모자가정 등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웃사랑 공병 모으기 운동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

며 지난해에도 어려운 학생 16명에게 10만원씩 총 160만원을 전달했다.

청주 주성중 적십자사
희망나눔 천사학교 협약

충북 청주 주성중학교(교장 이춘순)는 8일 충북적십자사와 희망나눔 천사학교 협약식을 가졌다. 희망나눔 천사로 등록한 22명의 학생들은 매월 소액(3천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되며, 1년간 학생들의 기부 금액은 100만원이 넘는다.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조정 탁구 교실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원장 한금희)는 2014년 4월부터 다사랑 생활체육 조정교실 및 탁구교실 사업을 각각 시작한다.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가 주관하는 이 사업들은 충청북도,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후원으로 시행된다.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는 지난 2년간 수영, 등산, 전통무예, 승마, 불링 등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에 선정되어 큰 호응 속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시행되는 조정 및 탁구교실 또한 이용자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다.

조정교실은 충주시 가금면 탐령리에 위치한 충주조정체육학교에서 실시되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조정의 기초부터 직접 수상에서 체험을 해보는 코스까지 단계별 맞춤 교육을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즐겁게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짜여 있으며, 탁구교실은 최근 새로 지어진 충주시 호암 제2체육관 탁구장에서 실시되며, 운동도구가 간편하고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문의는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846-3305-6)로 하면 된다.

청주동부소방서 울량119안전센터
주택안전지킴이 활동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울량119안전센터는 8일 상당구 내덕동 일대에서 훈련하는 노인 돌봄서비스 및 주택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울량안전센터 및 내덕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재난취약 가구와 훈련 사는 노인세대를 방문, 이불세탁, 환경정화, 주거시설 개선 등을 실시했다.

보람동산 함께하는 보람동산
우리는 하나 개최

제 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람동산(이사장 권영동)은 범인 산하시설 내장애인을 대상으로 4월 17일 ~ 4월 18일 보은 속리산(그랜드호텔)에서 함께하는 보람동산 우리는 하나 행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및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평소 힘들고 고된 일무 속에 휴식을 갖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함께 어울려 즐기면서 상쾌한 봄기운까지 덤으로 선물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청주병원과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부장 박기영)와 청주병원(원장 조원일)은 14년 4월 9일(수) 14:00 청주병원 회의실에서 조원일 원장 및 공단 관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무료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실 자원봉사
관리센터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요청인원 : 5명
활동기간 : 5. 14 ~ 12. 31
전화번호 : 043-216-4004

서류정리 및 행정보조
관리센터 : 청주경정법률상담소
요청인원 : 2명
활동기간 : 5. 14 ~ 12. 31
전화번호 : 043-257-0088

청소년 문화예술 재능나눔 봉사단
해피바이러스
관리센터 :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요청인원 : 30명
활동기간 : 5. 08 ~ 10. 04
전화번호 : 043-261-0714

요리자원봉사 모집
관리센터 : 외국인사랑나눔지원센터
요청인원 : 3명
활동기간 : 5. 11 ~ 12. 31
전화번호 : 070-8782-3699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기간 : 5. 28 ~ 5. 31
전화번호 : 043-269-0145

옥천군

멘토링 지원사업(활동비 지급)
관리센터 : 충북남부아동보호협회
요청인원 : 5명
활동기간 : 5. 07 ~ 6. 30
전화번호 : 043-731-3686

영동군

목욕 자원봉사 모집(남)
관리센터 :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요청인원 : 3명
활동기간 : 5. 01 ~ 12. 31
전화번호 : 043-743-1500

1004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 0명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복 / 지 / 만 / 평

이창신 www.bokmani.com

바람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는 충북도내 유일 사회복지 중심으로 설계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으로 '주택체험관', '디자인체험관', '휠체어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체험관

욕실, 거실, 주방 등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휠체어
체험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디자인
체험관 UD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고령자들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물건과 기구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날고 계십니까?

19평?

33평?

24평?

우리는 공평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가능한 공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체험가능시간 월~금 9시~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체험신청 및 문의사항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 043-239-8900

www.043w.or.kr